

화순군, 대출 지원·보증 확대...소상공인 살리기 나선다

을 지역화폐 700억 규모 발행...월 구매 한도 50만→70만원 상향 대출 금리 상한 캡 최고 5%대...저신용자도 보증서 담보로 대출

화순군이 이달부터 지역화폐 월 구매 한도를 20만원 늘리고, 소상공인 대출 금리 상한을 적용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다. 화순군은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추진계획'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우선 지역자금 순환과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화순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린다.

화순군은 올해 700억원에 달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236억원의 지역화폐를 판매했다. 화순군 측은 정책발행을 제외하고 한 달 평균 35억원의 지역화폐가 판매되는 것으로 보고, 올 한 해 700억원의 화순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대출이자 지원'과 '신용보증 확대'를 내걸었다.

화순군은 지역 은행들과 협약을 맺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그동안 화순군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3%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변동금리 적용에 따른 소상공인 자부담이 늘어나면서 '금리 상한 캡'을 적용하기로 했다.

화순군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시장조달금리(MOR)에 2.0% 금리를 추가하는 상한 기준을 두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은 최고 5%대 금리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화순군은 내다봤다.

신용이 낮고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에게에는 내년 부터 신용보증을 확대한다.

화순군은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을 통해 1억원 규모 신용보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화순지역 소상공인들은 대출금액의 85% 비중의 보증서를 발급받았지만, 화순군의 이번 확대 정책으로 100% 보증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 5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이라도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을 길이 열린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을 내년에 확대한다.

화순군은 올해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의 점포 내부를 개선하고, 영업에 필요한 식탁·의자 등 집기를 지원해왔다.

올 상반기에만 100여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에 신청해 23개 업체가 최대 30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화순군은 올해 소상공인으로부터 호응을 얻은 이번 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을 2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화순군은 민선 8기에 문을 연 '화순군 소상공인 센터'를 활성화해 지역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함께 '맞춤형 기업 지원'도 추진된다.

화순군은 ▲100대 우수기업 육성 ▲중소기업 융자 지원 ▲일자리 우수기업 발굴 등의 정책을 펼친다.

또 화순 2, 3 산업단지 등 신규 산단(농공단지)을 조성해 40개 기업을 유치하고 1360명에 달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계획을 세웠다.

특히 지난달 말 화순군이 '바이오 특화단지' 대상지로 지정되면서 150개 기업 유치, 1만명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지역경제 도약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 정책을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민



구북구 화순군수가 지난달 말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을 찾아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로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생경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지역경제 고 말했다. 제를 활성화하고 경영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겠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잘 자라서 돌아오렴” 장흥군, 감성돔 치어 방류



장흥군 관계자들이 회진면 대리항에서 감성돔 치어 22만마리를 바다에 풀어주고 있다. <장흥군 제공>

알 품은 어미 낚지도...수산자원 확보·해양 관광 활성화

장흥군이 수산자원 확보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회진면 대리항에 감성돔 치어 22만마리를 방류했다.

장흥군과 지역 어업인, 해양 관련 단체는 최근 득량만을 품은 회진 대리항에 치어 22만마리를 풀어줬다. 이와 함께 알을 품은 어미 낚지도 방류했다.

이번 방류는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산자원을 늘리기 위해 마련했다.

장흥 득량만 해역은 지난 2017년 '장흥 청정해역 갯벌 생태산업 특구'로 지정됐다. 이 지역은 국내 최대 갈피(거머리갈) 서식지역으로, 정착성 어종인 감성돔을 위한 최적의 생태환경을 갖췄다. 득량

만 해역 감성돔에서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유기산을 사용하지 않은 무산 김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에 방류된 감성돔 치어는 지역 종자 생산 어가에서 지난 2월부터 4개월 이상 양식해왔다. 평균 5cm 이상 성장했으며, 질병 검사를 마쳤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역 어민들의 소득 증가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나주 소상공인에 카드 수수료 30만원

9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서 신청...11월부터 지급

나주시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의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

나주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임차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자의 과세 자료가 확정되는 하반기에 맞춰 추진된다.

지원액은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로, 최대 50만원(나주사랑상품권)까지 지원한다.

나주시는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오는 11월부터 차례대로 나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매출액 1억원 이하의 나주지역 임차 소상공인이라면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공고

일 기준 폐업 상태이거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 대상 업종'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9월30일까지 나주시 일자리경제과(061-339-8163)나 사업장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경기 불안정에 대응 능력이 취약한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초복엔 강진 밀키트로 회춘하세요”

초록민음강진 직거래 쇼핑몰 판매

강진군이 초복을 앞두고 최근 강진 대표 음식인 회춘탕 밀키트 홍보에 나섰다. 회춘탕 밀키트는 지난해 9월 정식 출시돼 여름 삼복더위의 보완 음식은 물론 영양식으로 입소문을 타며 꾸준한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건강과 맛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강진 회춘탕 밀키트는 1인용으로 1만50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진하게 우려낸 육수와 건더기(닭고기·문어·전복·수삼·대추), 녹두죽으로 구성돼 있다.

회춘탕 육수는 간 기능 회복과 당뇨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엄나무를 비롯해 헛개나무, 느릅나무, 당귀, 가시오가피, 찹, 뽕나무 등 11가지 한약재를 사용했다. 이 육수에 시골촌닭과 국내산 문어, 전복이 들어가 기력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는 온라인 '초록민음강진 강진군 직거래 쇼핑몰(https://greengi.com/)에서 가능하다.

강진군 관계자는 "조리가 간편한 밀키트로 누구나 쉽게 맛있는 회춘탕을 즐길 수 있다"며 "더운 여름, 영양가 넘치는 회춘탕으로 몸과 마음을 충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군, 디지털 혁신으로 행정 효율성 '업'

웹 공간에서 공동 편집 기능 등 '사스' 도입...부서간 협업 강화

장성군 공무원들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도입으로 부서 간 벽을 허물고 협업 강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장성군은 행정안전부의 '공공용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사스·SaaS) 이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7월부터 협업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스 서비스 도입에 앞서 최근 이용 방법을 숙지하는 사전 교육도 마쳤다.

이 서비스는 통합 웹 공간에서 협업 업무 생산과 공동 편집 기능을 제공한다.

실시간 문서 수정·보완은 물론 완성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고, 일정 등록과 제출 여부 확인 기능을 통해 부서 간 자료 제출이 수월하다.

이 서비스는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인사가동이 잦은 공무원들에게 유용하다. 업무 이력과 관련 자료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고 효율적인 인수인계가 가능하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사스 기반 협업 서비스 도입으로 행정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혁신으로 군민에게 좀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소중한 우리 생태계 '추억의 우표 전시회'

담양에코센터서 9월까지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담양에코센터'에서 생태의 소중함을 알리는 '추억의 우표 전시회'가 열린다.

'생태와 함께하는 추억의 우표 전시회'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석 달간 담양에코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기획전은 에코센터와 담양 우표박물관이 협업해 추진한다.

전시에서는 점차 잊혀가는 우표를 선보이며, 생태·환경의 중요성도 알린다. 멸종 위기종과 보호야생동식물, 해양 보호 생물, 야생화 등이 담긴 우표 42점(800여 장)을 만날 수 있다.

에코센터는 관람객이 동식물 관련 염서와 우표를 이용해 편지를 보낼 수 있는 행사도 마련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시와 우표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고 자연환경 보호에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는 9월까지 담양에코센터에서 열리는 '생태와 함께하는 추억의 우표 전시회'를 방문객들이 관람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한편 담양 우표박물관은 지난 2015년 담양군 대전면에 문을 연 민간 최초의 우표 전문 박물관이다. 이곳에는 국내 최초 우표부터 현대 우표, 세계 우표 등 10만여 점의 다양한 우표가 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시민 마음 살 찌우는 '나주학 강의'

나주문화원 9번째... 오늘 '뮤지엄의 신 트렌드와 전망' 강의

나주문화원이 9번째 이어오고 있는 '나주학 강의'가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장수 교양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주학 강의는 7월에도 두 차례 문을 연다.

나주학 올해 강의는 '박물관,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지난 6월13일 개강했다. 매주 목요일 열리는 강의는 오는 11월까지 총 5회 시민들을 맞이한다.

첫 강의는 지난달 13일 배기동 전 국립박물관장의 '왜, 박물관인가?'라는 주제로 서막을 올렸다.

두 번째 강의는 김용권 한국민화연구소 대표의 '나주의 듀얼라이프 플랫폼으로서의 박물관 활용사업'이란 주제로 진행됐고, 세 번째는 이관호 한 국립박물관교육학회 회장의 '미래 박물관과 지역 상생 사례' 강의로 이뤄졌다.

4일 예정된 네 번째 강의는 양정하 이지워드 대표의 '뮤지엄의 신 트렌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강의는 오는 11일 윤영정 나주문화원의 '나주의 최초 이야기'를 주제로 향토사에 얽힌 다양한 숨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동안 강의에 참석한 한 시민은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나주를 방문해 박물관의 가치를 다양한 주제로 비추어 일깨워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나주에도 시민들의 영혼을 깨우는 꿈의 박물관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말했다.

나주학 강의는 시민뿐 아니라 나주천연염색박물관 연구관과 지역 문화유산해설사들도 함께 참여해 경청할 만큼 호응을 얻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